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2. 16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성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안도현(032-453-7031), 담당 PM 한은정

“청라를 금융허브로…하나드림타운 헤드쿼터 첫 삽 떴다” 하나금융그룹 착공식 개최…2025년 완공되면 6개 계열사 2,800여명 근무 통합데이터센터 등은 이미 완공…세계서 인정 받은 건축 디자인으로 청라 랜드마크 기대

-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청라국제도시를 금융 허브로 이끌 하나드림타운의 헤드쿼터(HQ)가 착공됐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5일 청라 하나드림타운 헤드쿼터 부지 특설무대에서 헤드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.
- 이날 착공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, 김교흥 국회의원, 신동근 국회의원,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,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부 부시장,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이 참석했다.
- 하나드림타운은 청라 246,671㎡의 부지에 7,3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, 하나금융그룹의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, 하나글로벌캠퍼스, 그룹 헤드쿼터 등을 집적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.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한 사례다.
- 지난 2017년 1단계 통합데이터 센터가 준공돼 1,800여명의 인력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인 하나글로벌캠퍼스도 지난 2019년 준공됐다.

- 3단계로 이날 착공된 하나드림타운 그룹 헤드쿼터는 지하 7층, 지상 15층, 연면적 128,474㎡ 규모로 오는 2025년 준공되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, 하나카드, 하나금융투자, 하나생명, 하나손해보험, 하나금융지주 등 6개사가 입주해 2,800여명의 금융 전문 인력들이 근무할 예정이다.
-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존에 계열사 별로 분산돼 관리해오던 정보기술(IT) 인프라, 인력 양성, 업무 역량을 청라에 집적시키고 있다.
- 그룹 헤드쿼터가 준공되면 청라가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청라의 랜드마크 기능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. 특히 미국의 권위 있는 건축설계사인 NBBJ가 직접 설계한 그룹 헤드쿼터 디자인은 NBBJ가 수행한 300여개의 프로젝트 중 아시아 최초 ‘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’를 수상했고 미국 인테리어 디자인(Interior Design) 주관 ‘2021 Best of Year Awards’ 미준공 부문 1위인 ‘Winner’에 선정되는 등 탁월한 건축미를 인정받았다.
-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“청라 그룹헤드쿼터는 하나금융의 강력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365일 개방,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“건물 조성 공사와 계열사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하나금융그룹과 인천시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가겠다”고 강조했다.